



이현정 한국문화센터 소장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7 테러 막으려면 민족주의 버려야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는 대 참극이 벌어졌다. 93명을 숨지게 한 폭탄 테러 및 총기 난사 사건은 다문화주의와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은 세계적으로도 복지국가로 칭송받는 곳이다. 이민자에 관대한 곳이기도 한 이곳은 유럽에서도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가장 약한 곳이었다. 그러나 테러범은 노르웨이 백인으로 32살의 평범한 젊은이,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비키라는 자였다. 그가 남긴 1500쪽 분량의 성명서에는 다문화주의와 이슬람 이민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유럽 언론들은 유럽 전역에 퍼진 극우주의 환경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인터넷상의 네트워크에서 심한 폭언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실업률이 하락하거나 경기가 안 좋아 지거나 하면 반다문화주의자들의 항의와 시위는 더욱 거세지기 마련이어서, 노르웨이 및 유럽 민족주의자들의 테러에 대한 모방범죄, 모방테러 등이 한국

에서도 나올까 우려가 된다.

현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는 다문화주의를 배척하는 극우정당이 점차 세를 넓혀가고 있다. 유럽 사회가 경기침체를 거둬하면서 '이방인'에 적개심을 품게 된 것이다.

독일은 현재 약 5만 명의 극우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극우범죄가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사건 성격도 더욱 난폭하고 잔인해졌다. 이번 노르웨이 사건의 주범 브레이비키는 민족주의 성향이 짙었다. 게다가 자신을 '보수적인 기독교인' '반 이슬람주의자' 등으로 묘사했다. 민족주의사상과 종교의 결합이 화약고인 셈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대립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같은 뿌리를 가진 이 두 종교는 각성하고, 교리적 정리 및 평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정립을 해야 한다. 종교간 범죄나 대학살 등이 더 무서운 까닭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없이 오히려 영웅시한다는 데에 있다. 마치 국가를 위해 애국적인 일을 감행한 것인 양 오대기까지 하는 모습이다. 이런 현상은 전염성이 커서, 유럽 내의 극우파들을



사진출처=노르웨이테러 추모집회 ©AP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신세대문화국가로 거듭나려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연구와 대비, 대책 등을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범인 브레이비키 사전에 작성한 선언문은 이민자에 대한 증오심과 광적인 종교관으로 뒤덮여 있었다. 다문화사회를 거부하는 광기 어린 기독교 원리주의자의 대학살극은 전 세계가 이 주의 바람이 부는 이때에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외국인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더구나 노르웨이보다는 무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가진 능력과 인성교육에 힘을 기울여 건전한 품성을 지닌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경쟁력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다문화 정책 마련이 필요한데, 다문화통합기구 마련과 다문화통합법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원인을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의 현상들의 특징, 역할, 나타남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특징 등에 대해 이해가 이루어지면 더 나아가 몸과 마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몸과 마음에 대한 어리석음, 탐욕과 성냄 등의 번뇌가 생기는 원인을 알 수 있고 번뇌의 원인을 알면 원인을 버림으로써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만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한다. 이 사람은 조사를 통해서 그것의 주요 원인

이 일어나게 돼 더 이상 과거의 경험에 연연하지 않고 단지 과거의 경험일 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지혜가 성숙하면 결국 번뇌는 버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특징 등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조사를 통해 번뇌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상한 것을 영원으로,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무아인 것을 자아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아는 전도된 마음이 근원적인 원인을 통찰해야 전도된 마음을 버리고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

단순한 알아차림만을 지속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을 일시적으로 가라앉게 할 수는 있지만 어리석음을 버릴 수는 없다.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통해 지혜를 길러야만 가능하다. 원인을 이해하면 모든 현상들이 원인이 있으면 일어나고 원인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현상들이 변화[無常], 괴로움이며[苦], 실체가 없다[無我] 사실을 깊이 통찰하는 위빠사나 지혜가 개발되는 것이다. 위빠사나의 지혜가 성숙하면 전도된 생각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릴 적 괴로웠던 경험을 실제 있다 생각해 괴로워 없는데 있다 착각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아야

이 어린 시절 선생님께 심하게 꾸지람을 듣고 매를 맞았을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더 깊이 조사해보니 어릴 때의 괴로웠던 경험이 마치 변하지 않는 실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즉 어릴 적의 경험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깊이 숙고해보면 그것은 그때 일어났다가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이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법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는 실체가 없는 것[無我]을 실체가 있는 것[我]으로 잘못 아는 어리석음으로 인한 전도된 생각이 지시인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면 과거의 경험이 이미 지나가버린 하나의 사건이며 실체가 없는 것[無我]으로 통찰하는 인식의 전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인을 반조하는 것은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원인을 조사하다보면 생각 자체에 빠져들어 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찾는 것은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을 충분히 한 후에 조사를 해야 올바른 반조가 가능하다.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올바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올바른 정보들이 많아져야 올바른 반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인과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지혜를 개발하면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롭게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혜롭게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속하는 것은 번뇌를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길이다.

일목 스님(제파와나 방배선원장)

정치전 건강칼럼 10

냉방병에는 파뿌리 넣은 된장찌개가 최고

감기는 비록 가벼운 질병이지만 하지만 각종 합병증을 유발한다. 특히 노인은 기가 허약하고 만성병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정기가 손상돼 중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감기는 바람(풍, 風)이 주된 원인으로 '상풍(傷風)', '상한(傷寒)' 혹은 '감모(感冒)'라고 한다. 풍은 변화무상하기에 감기도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변화가 많다. 감기의 초기 상태는 냉(冷, 風寒)감과 열(熱, 風熱)감기로 대별된다. 냉 감기로 시작했더라도 대처가 미흡하면 피부 표면에 머물러 있던 한기가 몸속으로 들어가 열로 변한다. 냉 감기는 땀을 내서 한기를 몰아내고, 열 감기는 열을 없애주는 것이 기본이다. 노약자의 경우 양기(陽氣) 또는 음기(陰氣)를 보충해야 완치된다.

냉 감기는 열이 높지 않고 오한이 심하며 땀이 없다. 열이 마르지 않고 전신 관절 통이 있으며 회고 붉은 가래가 나오고 콧

물이 맑다. 파뿌리, 굴껍질, 생강 등을 달여 마시고 땀을 내야 한다. 콩나물국에 고추장을 넣어 먹는 것도 좋다. '냉방병(冷房病)' 역시 냉 감기의 일종으로, 위장장애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땀을 내게 하고 비위장을 건실하게 해야 한다. 냉방에서는 얇더라도 긴 옷을 입도록 하고, 몸을 자주 움직여 혈액 순환을 도와주며 생강차, 계피차 같은 따뜻한 성질의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반면 열 감기는 열은 심하지만 오한은 가볍고 땀이 있으며 입이 마르고 인후통이 있다. 가래가 누렇고 콧물도 끈적하며, 누렇고 진하다. 이때는 서늘한 성질을 가진 약으로서 열을 내려주고 폐의 기를 맑게 하는 치료법을 쓴다. 취 췌나무 잎 국화 민들레 인동덩굴 매주 배즙 배주 무 수박 속주나물 두부 등이 도움이 된다. 매주는 찬 성질로서 목살로 열이 많고 머리가 아픈 경우에 열을 내리고 약한 기운을 몰아내는 효능을 나타내는 한약재이다. 그러나 집에



서 먹는 된장찌개가 훌륭한 감기약으로서 열감기에는 두부, 냉감기에는 파뿌리를 넣으면 된다.

감기에 걸리면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되지만 과식이나 기름지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생채소, 생과일, 생선회 등은 물론이고 냉면, 아이스크림 같은 찬 음식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감기에 구연산이나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매실, 꿀, 레몬 등이 좋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감기초기에는 피해야 한다. 신 음식은

땀이 나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려 치료를 받아도 오래도록 열이 오르내리고 머리가 아프며 으슬으슬 춥고 뱃속이 갑갑하면서 더부룩해 입맛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기나 회 같은 음식을 과식하고 체했는데 뒤에 찬바람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로 노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며, 이를 '식적유상한(食積類傷寒)'이라고 한다. 이때에는 비위장에 맺힌 식체를 없애야 낫는다. 이를 예방하려면 냉방이 너무 강한 실내에서 식사를 오래 하거나 또는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혹은 식후에 찬바람을 쐬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평소 감기, 천식이 와서 겨우내 고생하는 분이라면 여름에 찬바람과 찬 음식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 평생운, 해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계약절개 수술일자, 묘이자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특수 교육강좌>

- ◆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5주)
- ◆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 ◆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완성)
- ◆ 천부경 숫자풀이법(5주 완성)
- ◆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포함)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사까지

☐ 서울·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전교육원 (010)-6476-1021
☐ 대구교육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http://cafe.daum.net/cheonbu6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중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집한다.

총무원장 무량명 해봉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받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해봉 스님 직통 011-545-5060

불자의 금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